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3일~7일
코스피지수	2111.95	▲ +93.07
코스닥지수	672.63	▲ +25.78
환율 (원·달러)	1193.50	▼ -0.50

지수는 7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 비즈 포커스 | “서울 한복판까지 뚫렸다”...유통업계 ‘신종 코로나’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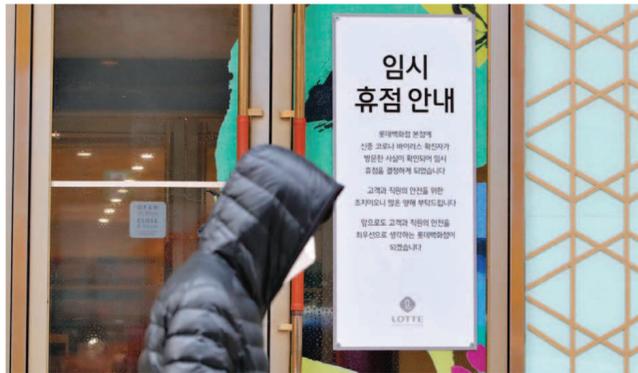
# 전국 백화점 오늘 휴점...방역 선제공격

롯데백·이마트 ‘코로나 휴점’ 쇼크  
철저한 방역으로 소비자 불안 해소  
“메르스보다 고객감소 심각” 전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이 잇따라 임시휴업에 들어가 유통업계가 초비상이다.

롯데백화점은 23번째 확진자가 2일 서울 소공동 본점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7일 오후 2시부터 임시휴점에 들어갔다. 방역조치를 거친 뒤 10일 문을 열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자체 휴점이 아닌 방역을 위해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롯데면세점 명동점 역시 임시휴점 조치에 들어갔다.

이마트 마포공덕점도 23번째 확진자 방문으로 7일 오후 2시부터 임시휴점에



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임시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방문으로 임시휴점에 들어간 대형 매장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1

들어갔다. 9일까지 방역작업을 마치고 보건당국과 협의해 영업재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점, 12번째 확진자와 14번째 확진자 부부가 방문한 부천점이 임시휴점한 데 이어 이번에 벌써 세 번째

매장이 임시휴점에 들어갔다. 현대아울렛 송도점도 19번째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6,7일 이틀간 휴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국 대부분 백화점이 확진자 방문과 무관하게 10일 하루 문을

닫고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할 계획이다.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방역으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언택트(Untact) 소비로 오프라인에 비해 매출이 크게 늘어났던 TV홈쇼핑에서는 사육이 폐쇄되면서 생방송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번째 확진자의 직장인 서울 문래동 GS홈쇼핑 본사가 6일 오후 1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임시폐쇄됐다. 폐쇄기간 동안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없어 재방송을 했고 사육은 긴급 소독과 방역조치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오프라인 고객이 줄어든데다 아예 매장 영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업계의 피해액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휴점을 마친 이후에도 한동안 고객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면서 이번 사태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경록 기자 jay@donga.com

## 삼성, 신종 코로나 피해 협력사 지원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조업과 부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고, 삼성펀드와 물대지펀드 등 삼성 프로그래밍과 연계해 1조 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저금리로 대출 지원한다. 또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2월 물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협력회사가 긴급 자재공급을 위해 항공 배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물류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위생, 방역, 확산방지 수칙 등을 담은 행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국 진출 협력회사에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도 공급한다.

김명근 기자

## HDC신라면세점, 고선건 공동대표 선임



HDC신라면세점은 고선건(사진) 전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장을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고선건 신임 공동대표는 1966년생으로 아주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2008년 호텔신라 신라면세점 서울점장과 2010년 면세사업부 마케팅 팀장을 거쳤고 2015년 인천공항점장을 역임했다. 고선건 신임 공동대표는 “신라이파크면세점이 경쟁력을 갖춘 시내 면세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 5G 첫해...이통3사 작년 영업이익 줄었다

(SKT·KT·LGU+)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7~8% 줄어  
네트워크 투자·마케팅비 증가 여파  
올 5G서비스·미디어 신사업 강화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 17조7437억 원, 영업이익 1조110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8년보다 5.2%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7.6% 감소했다. KT는 매출 24조3420억 원, 영업이익 1조1510억 원을 기록했다. 역시 매출은 전년보다 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8.8%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매출은 5.6% 증가한 12조3820억 원, 영업이익은 7.4% 줄어든 6862억 원을 기록했다. 3사 모두 지난해 5G 네트워크 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올해도 이통사의 5G 투자는 지속되지만, 5G 가입자 확대 및 기업간거래(B2B) 영역 개척 등으로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올해 국내외 사업자들과 함께 5G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B2B 모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미디어 사업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을 4월 말 출범한다. KT는 AI와 미디어 등을 결합하고, 스마트팩토리 등 5G 융합 서비스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5G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한다. 특히 B2B에서 스마트팩토리, 원격제어, 커넥티드카, 스마트스쿨, 드론 등으로 사업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 인수한 LG헬로비전과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i@donga.com

## 한진그룹, ‘조현아 호텔·레저사업’ 접는다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부지 매각키로  
그랜드하얏트 인천 등도 정리 수순

동생의 반격이 매섭다. 한진그룹이 그룹 호텔사업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7일 이사회를 열어 칼호텔네트워크 소유의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부지를 매각키로 했다. 또한 LA 월셔그랜드센터와 인천 그랜드하얏트 인천도 사업성을 검토해 계속 개발·운영할지, 구조개편을 할지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송현동 부지와 왕산저개발 지분 매각에 이어 이들 사이에 호텔·레저 분야의 주요 사업을 초고속으로 매각하거나 정리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수익성을 이유로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결정한 사업들은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진두지휘하거나

애착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손을 잡은 행동주의펀드 KOGI가 그룹 재무건전성을 위해 그동안 정리를 요구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3월 한진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명분과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노리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한국마사회, 대학생 SNS 서포터즈 모집



한국마사회는 사진과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

상으로 서포터즈(사진)를 12일까지 모집한다. 총 30명이며 3월부터 6월까지 한국마사회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견학시설을 탐방한 뒤 한국마사회 SNS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다.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활동팀은 별도 포상도 한다. 한국마사회 공식블로그(blog.naver.com/letsrun2014)의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letsrun2014@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19일이다.

정용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i@donga.com

## 교육·퍼즐

### 에듀윌

독서토론·도서 제공 등 ‘독서경영’ 박차

###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밀리의 서재’ 지원...독서 친화적 사내환경 조성

중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임직원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플랫폼 ‘밀리의 서재’ 구독권을 통 크게 지원한다. ‘밀리의 서재’란 월정액을 결제하면 전자책을 무제한 열람할 수 있는 독서 플랫폼으로 임직원들이 부담 없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2개월 구독권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에듀윌은 꾸준히 독서토론을 개최하고 도서를 지원하는 등 독서 문화를 장려하는 ‘독서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직원 사내 복합문화 공간 에듀윌역에는 사내 도서관 ‘북홀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입사자 대상 필독서를 마련하는 등 독서 친화적인 사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사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롭게 ‘밀리의 서재’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은 물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



도입한 워라벨 기업으로 유명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공적을 인정받아 ‘2019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듀윌에는 사내에 직원들을 위한 마사지실 ‘힐링큐브’가 있다. 전문 안마사가 상주하며 업무시간에도 마사지가 가능하다. 사내 복합 문화 공간 에듀윌역에서는 수준 높은 39대가 넘는 안마의자와 오락 시설 등도 겸비하고 있다.

까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에듀윌은 작년 6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3	6	9	4		
		7	3		6
6	1		9		
5	7		9		8
1	8	4	5		
3		5		6	9
	3		5	2	
2		5	3		
	7	2	6	9	

2	4	6			
6			3	5	4
5	7	9			
9	4	6	5	3	
		3	7		
6	7	9	2	8	
		6	3	1	
5	7	6		3	
		5	2	6	

### 스도쿠정답

4	6	9	1	2	5	8		
1	8	9	2	5	6	7	3	4
2	3	5	4	7	8	9	1	6
6	9	1	2	5	7	4	8	3
8	5	7	4	9	8	2	1	6
8	7	2	1	6	8	9	2	5
1	2	6	9	8	4	1	2	9
9	2	8	3	1	5	6	4	7
5	1	4	6	2	9	8	3	7
7	9	4	2	8	5	1	6	3
2	8	7	1	6	9	2	5	4
5	1	6	8	2	9	7	4	3
9	4	2	6	1	7	3	8	5
9	6	1	2	4	3	5	8	7
3	2	5	8	9	2	1	6	4
1	2	9	6	3	2	8	5	7
4	5	1	2	8	6	9	7	3
6	8	7	9	5	4	3	2	1